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계 물류동향 중 국제물류투자 협의회 회원사들(2010.12. 현재 122개 업체) 및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신규 해외사업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회 회원사들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글로벌 물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은 우리 센터로 연락¹⁾을 주시고, 다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는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등의 역할을 지원²⁾할 수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회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 관련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매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목 차 〉

□ 친저우(钦州) 보세항구 대외개방 1차 통과 -----	2
□ 베트남 Cua Lo 심수항 건설 공사 착수 -----	3
□ 미국 교통부(DOT), Crescent 회랑 개발 지원 발표 -----	4
□ 호주 '국가항만전략(National Port Strategy)' 발표 -----	5

1) 연락처: 김찬호 책임연구원(02-2105-2908, chkim@kmi.re.kr), 송주미 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
김성야 연구원(02-2105-2897, sungyakim@kmi.re.kr)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KMI 국제물류위클리

□ 친저우(钦州) 보세항구 대외개방 1차 통과

- 중국 광시(廣西)세관, 광시출입국검역국, 광시공안국, 광시해사국 등 세관 검역부문은 친저우 보세항구에 대한 전면 개방을 1차적으로 통과시킴
- 친저우보세항구는 '08년 5월에 설립되어, '09년 12월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총 계획면적은 10km²으로, 1단계 건설면적은 2.014km²임
 - 올해 들어서, 30만 톤급 및 10만 톤급 항로 확장, 30만 톤급 부두 건설, 10만 톤급 선석 10개 건설 등 항만 물류 인프라 개발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함
 - 연초, COSCO 남북직항 컨테이너 항로 개통 후, 연중에는 친저우항-베트남 하이퐁항 수출입컨테이너항로를 개통함
 - 중국내 주요 항만들과 항로를 개통함과 동시에 CNPC(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 CSCL(중국해운그룹), SINOTRANS(중국외운장항그룹) 등 중국내 대표적인 항운, 물류, 무역기업을 유치함
- 친저우항의 연간 화물처리능력은 6,000만 톤 정도이며,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5년 2.5만 TEU에서 2010년 22만 TEU로 증가하여, 5년간 무려 7.8배의 성장을 거두었음
- 아직, 대외개방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친저우항은 '12.5계획" 기간 '서부대개발계획'의 힘을 입어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업형 항만으로 거듭 부상될 것이며, 이에 따른 해외 물류 및 건설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으로 전망됨

<친저우항 위치>



<친저우항 전경>



자료 : XinhuaNet-Guangxi News, 2010. 12. 01 / www.12ot.com, 12. 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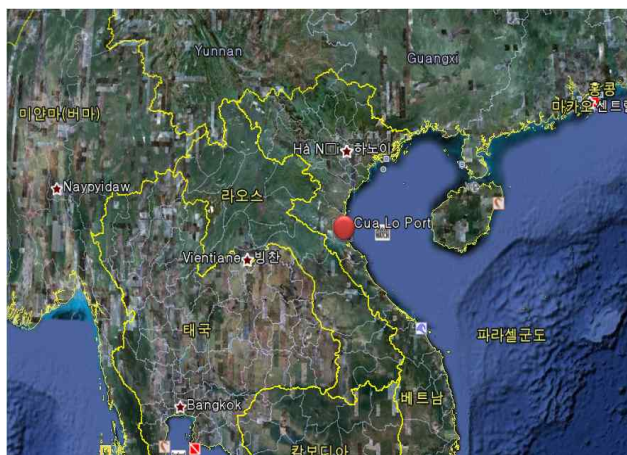
김성야 연구원(☎ 02-2105-2897, sungyakim@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베트남 Cua Lo 심수항 건설 공사 착수

- 베트남 정부는 Nghe An성에 위치한 Cua Lo 항구의 심수항 공사를 본격 착수함
 - 2,500m에 달하는 방파제 건설, 3,260m에 달하는 부두 건설 등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총 투자액은 4.9억 달러이며, 지방재정 및 기타 자금으로 조달됨
- Cua Lo 심수항은 3단계로 나누어 개발되며, 2030년에 완공될 예정임
 - 1단계는 2015년까지 3만 톤급 및 5만 톤급 선석을 건설할 계획임
 - 2단계는 2020까지 3만 톤급 선석 4개, 5만 톤급 선석 2개를 건설할 계획임
 - 3단계는 2030년까지 3만 톤급 선석 8개, 5만 톤급 선석 3개, 10만 톤급 선석 1개를 각각 건설할 계획임
- 2030년에 이후에는 항만을 확장하여, Cua Lo 심수항 배후 면적을 110헥타르로 증대시킬 것임
- Cua Lo 심수항 건설 목적은 Nghe An성과 동남아 지역 화물의 수출입 무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태국 동남부 각 성과 라오스의 중계화물도 유치하고자 함
- Cua Lo항만 개발은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Investment & Development Company의 투자로 이루어지는데, Japan Port Consultants(JPC)가 투자 건설 사업에 대한 기획을 담당하고 있음

<Cua Lo항 위치도>



자료: Vietnam Investment Consultants Network, 2010. 12. 08./ www.vnbusinessreg.com 2010. 12. 08.

김성야 연구원(☎ 02-2105-2897, sungyakim@kmi.re.kr)

□ 미국 교통부(DOT), Crescent 회랑 개발 지원 발표

- 미국 교통부는 미국 노포크(Norfolk) 남부에서 걸프만에 이르는 2,500마일(4,023km)의 Crescent 회랑 건설 사업에 1억 5백만 달러의 정부재정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함
 - 지원자금은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09"에 의해 조성된 펀드이며,
 - 미국 아칸사스(Arkansas)주 멤피스(Memphis)와 앨라배마(alabama)주 버밍햄(Birmingham)에 건설 예정인 지역 인터모달 시설 건설에 지원될 예정임
 - 앨라배마 주 버밍햄 지역 인터모달 시설(Birmingham Regional Intermodal Facility : BRIMF) 개발 면적은 261에이커(1.06km²)로 총 1억 5천만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며, 이중 펀드 자금은 총 5,250만 달러임
 - 아칸사스주 멤피스 지역 인터모달 시설(Memphis Regional Intermodal Facility : MRIMF) 개발 면적은 380에이커(1.54km²)로 총 1억 5,760천만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며, 이중 펀드 자금은 총 5,250만 달러임
- ※ Crescent 회랑 사업은 13개의 주(알라바마, 델라웨어, 조지아,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미시시피,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남 케롤라인, 북 케롤라인, 테네시, 버지니아, 서 버지니아)에 걸친 복합운송 연계사업으로 Heartland 회랑, CREATE(Chicargo Region Environmental and Transportation Efficiency Program), Pan Am Southern, MideAmericam Meridian Speedway, empire Link, 버밍햄 지역 인터모달시설, 멤피스 지역 인터모달 시설 사업 등을 구성
- ※ 이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2030년까지 73,000개의 신규 인력 창출, 11개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 최소 100만대의 트럭운송 감축효과, 연간 200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 연간 142만톤의 연료 절감효과, 연간 5억 7,600만달러의 고속도로 교통체증비용 절감 등이 예상되고 있음
- ※ Crescent 회랑 사업은 2020년까지 총 25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며, 사업의 주체는 Norfolk Southern Corporation임

자료 : ci-online, 2011. 01. 03. 및 The Future Needs US.

김찬호 책임연구원(☎ 02-2105-2908, chkim@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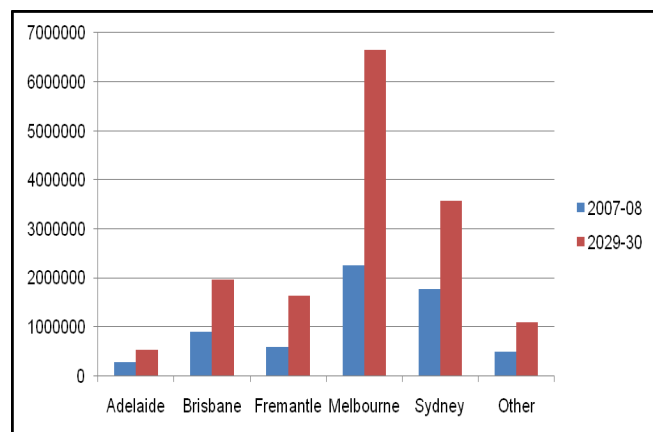
□ 호주 '국가항만전략(National Port Strategy)' 발표

- 지난 1월 7일(금), 호주 '국가항만전략(National Port Strategy)'이 발표되었음
 - 이는 호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국가 단위 전략이며, 2010년 5월에 초안이 공개되었음
 - 이후 정부 당국 및 산업 주요관계자들의 집중 협의를 거쳐 줄리아 길러드(Julia Gillad) 호주 총리와 안토니 알반니스(Anthony Albanese) 인프라교통부 장관에 의해 발표되었음
 - 20년 후에 호주 물동량이 현재의 3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항만 뿐 아니라 철도 및 도로 등의 시설 부족으로 인한 병목현상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항만전략에는 항만별 구체적인 단계별 확장 계획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개별 항만운영기관에 15~30년간의 예상 물동량 및 처리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음
 - 주정부 및 항만당국에 '완충장치(buffers)'를 갖추고 항만 접근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항만전략은 각 주정부의 인가를 거쳐 다음 달에 총리가 결재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국가항만전략은 국가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절차를 빨리 진행할 것을 포함하고 있음
 - 이로서 시드니 외곽의 물류허브 개발 및 Botany 항과 시드니 공항 사이의 도로 확장 프로젝트 (M5 확장 프로젝트) 등의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호주 항만 현황>



<호주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자료 : news.ninemsn.com.au, 2011. 01. 07 / www.ntc.gov.au, 2011. 01. 07 /
www.infrastructureaustralia.gov.au

송주미 연구원(☎ 02-2105-2872, jmsong@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비용 지불),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